

[사회]

한약재 황금(黃芩) 먹인 '황금닭' 품평회 호평

토종닭 브랜드화 '활짝'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보양식 삼계탕의 계절, 인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반 황생제를 쓰는 대신 한약재를 먹여 안전성과 상품성을 높인 고품질 토종닭이 탄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성제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폐사율을 보였다. '황금'의 황생제로서 효과는 일반 입증된 셈이다. 황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닭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배가량 높은 32%의 폐사율을 기록했다.



▲황금(黃芩)=풀꽃과 여러해살이 풀. 해열·소염·항균 효과가 있어 한방에서는 황생제로 사용되어 왔다. 전국 총 생산량의 98%인 105t가량이 여수·고흥·장흥 등 전남에서 생산된다. 1kg당 1만5천~2만 원 정도의 비교적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부드럽고 쫄깃...안전한 먹거리"

전남도, 상품화 본격 추진키로

황생제를 대신해 한방에서 황생제로 사용되는 '황금'을 먹여 키운 토종닭의 '상품성'을 점검하는 행사였다.

전남도는 29일 강진군 작천면 용정마을에서, 전국 최초로 한약재 '황금'(黃芩·사지)을 사료에 섞어 먹인 '황금닭' 품평회를 열었다. 폐사율을 낮추기 하지만 안전성이 의심되는 일반

닭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 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한약재배 농가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강진군 작천면 용정마을에서 29일 열린 '황금닭 브랜드사업 보고회 및 품평회'.

교사 체벌 줄고 학생 불만은 커져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내 교사의 체벌은 줄고 있으나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8%, 가끔 당했다 71.2%)에 달했던 체벌 경험 학생 비율이 2004년 초·중·고생 6천475명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사에서 79.6%(자주 당했다 15.8%, 가끔 당했다 63.8%)로 감소했다.

25.8%로 늘어 체벌을 당한 학생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떤 경우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학생 비율이 같은 기간 14.8%에서 15.3%로 증가한 반면 '잘못한 경우라면 때려도 된다'는 학생은 70.4%에서 69.9%로 줄어드는 등 학교 내 체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임금 12.3% 인상

시간급 3,480원·일급 27,84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2.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7천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이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2만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4

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각각 최초 2.4%, 35.5% 인상을 제시했으나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가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의 노·사·공익 위원들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한계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 지도·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연행뉴스

"식재료 업체 선정기준 강화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주장

전교조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9일 "식중독과 같은 학교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날 '급식개선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급식사고와 관련해 직영 급식, 관리감독의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급식사고의 대부분이 식재료에서 비롯되는 만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급업체 참가자격 기준에 '급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품질 ▲제조공법 ▲성분비 ▲납품단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체라

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육류는 전문가라도 암수·부위·등급 구별을 쉽게 할 수 없는 만큼 세부 기준에 '납품업체에서 직접 도축하지 않는 경우 육류의 암수·부위·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및 실물을 비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와 ▲납품단가 할인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계약기간 일원화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급식사고의 대부분이 식재료에서 비롯되는 만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 식재료 납품 계약기간이 6월말로 만료돼 다음달 신규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광주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동신대 총장에 정기언 前교육부차관보

동신대학교 5대 총장에 정기언(52·사진)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해인학원(이사장 김필식) 동신대는 29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일기가 만료되는 이근범 4대 총장 후임으로 정 전 차관보를 선임했다.

정 총장 선임자는 진도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으며,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여년 동안 교육부에서 근무한 정



교육관료이다. 총북대 사무국장,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서울대 사무국장, 대통령 교육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총장이 취임식은 오는 7월14일 오후 2시 동신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태종기자 hwangtae@

Weather forecast for Jeonnam and Jeonbuk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various cities like Gwangju, Jeonju, and Jeonju.

Forecast for Gwangju and Jeonnam, highlighting a high chance of rain with 80mm or more.

Article about the discovery of a Japanese document (Shimoda Document) related to the Korean War, mentioning the role of the Shimoda Consulate.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Gwangyeok-si' medical services, listing various clinics and their specialties such as internal medicine, surgery, and pediatrics.